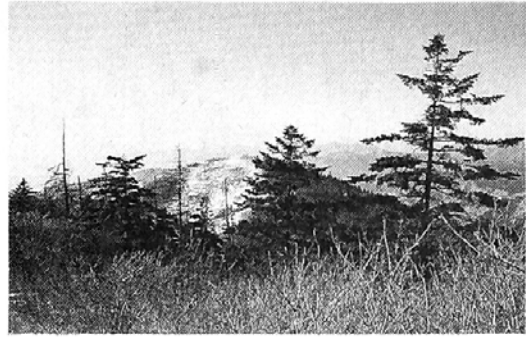


### 부처님의 지구 사랑

전 재 성 ⑧



오염된 공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질 측정기

#### 토양의 산성화

부처님께서는 상용어휘의 '사람'이란 경에서 신체의 땅의 일부인 유골이 어떻게 자연의 땅과 더불어 유전하는가를 비유로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한 사람이 한 겹의 시대를 유전하며 윤회하는 동안 그 유골의 뼈다귀 유골이 쌓인 유골더미는 만약에 그것을 함께 모아서 모은 것이 파괴되지 않는다면 베벨리산처럼 크게 될 것이다" 중생이 수많은 겁을 윤회하면서 일찍이 자신의 신체가 아니었던 땅은 없었다고 말해도 좋다.

이러한 땅에 산성비를 내려 토양을 산성화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신체에 독극물을 주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땅은 우리 자신의 억압의 윤회동안 겪은 생노병사의 괴로움을 함축하고 있는 신성한 자연이다. 땅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파괴하는 토양의 산성화는 이러한 신성한 자연에 치유할 수 없는 괴로움을 안겨주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와 편리함을 만족시키기 위해 마구 사용하는 기름, 석탄, 가스 등의 화석연료가 있다. 이러한 화석연료는 그 연소과정에서 이산화황이나 산화질소, 기타 각종 중금속들의 공해요인을

방출하는데, 이것이 비와 안개나 눈, 서리, 이슬등과 만나면, 산성비나 산성안개, 눈, 서리, 이슬이 되어 땅위에 내린다. 그것들은 땅속의 알카리성 토양을 중화시키고 산성화하면서 많은 비료성분을 유실시킨다. 이때 농약이나 화학비료의 사용도 이러한 토양의 산성화를 유발시킨다.

뿐만 아니라 산성화의 진행과정에서 땅속의 알루미늄, 동, 카드뮴, 아연,

납등과 같은 중금속을 양이온상태로 용출시킨다.

이들 용출된 알루미늄 이온들은 곰팡이, 세균을 비롯한 미시적 지하생태계에 아주 유해한 해악을 끼친다.

땅, 물, 불, 바람과 생명현상으로 구성된 땅의 생태계도 그로인해 파괴된다. 자신의 한가닥의 잔뿌리의 생존에도 10억마생물과 공존하던 지상의 거시적 식물들의 생태계도 결국 죽고마는 것이다.

토양이 산성화된다는 사실은 앞에 살펴보았듯이 땅의 중금속 오염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미시적 지하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지상의 생태계도 병들게 하고 파괴하고 있다. 식물에 흡수된 중금속은 다시 인체에 흡수되어 암등의 심각한 기능장애를 일으킨다. 만약에 땅의 중금속

## 서독, 삼림 55% 이미 병들어 50년 계속되면 식량도 기근

## '95 신행 캠페인

###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서울 구룡사를 원찰로 신행생활하고 있는 김정숙(43) 보살은 요즘 불자로 거듭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지난 8월부터 구룡사에서 진행 중인 '불자에서 열반까지, 참회정진 사경법회'에 참여, 그동안 의연하고 싶었던 자신의 허물을 부처님전에 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강경을 한자 한자 사경할 때마다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백팔참회를 통해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참다운 불자가 되기 어렵다. 문제는 잘

금주의 주제

참회하기

### 청정심 회복하는 영약

허물 숨김없이 드러내고 꾸중 청해야

뜻을 범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합리화 하려는 데 있다. 특히 청정한 계행도 중요하지만 깨끗하다 해도 바로 파계의 원인을 반성하고 다시 계를 지키겠다는 올바른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과거로부터 지어온 잘못은 물론 현재 생활하는 가운데 지은 모든 허물과 잘못을 뒤우치고 또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부처님전에 고하는 것을 참회라고 한다.

불교에는 참회의식으로 포살과 자자가 있다. 포살은 보름과 그믐에 대중에 한곳에 모여 계경(戒經)조목을 들어가면서 '잘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 대중에 고백하는 의식이다. 불자들이 하루 밤, 하루 낮동안 지켜야 할 계율을 잘 지켰는지 육재일(8,14,15,23,29,30)에 계를 잘 지켰는지를 스스로 반성하고 악업을 짓지 않도록 하는 것도 포살이라 할 수 있다.

공명선원 초격스님은 "현대인의 생활에서 포살일을 지키기는 어렵지만 일정한 시간을 정해 자신의 허물을 부처님전에 바치고 자신의 원을 세우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한다.

자라는 스님들이 안개를 걷는 마지막 함께



○ 지난 5일 안양 한마음선원에서 가진 '깨달음의 사회화' 모금에 불자들의 정성이 줄을 이었다.

### 깨달음의 사회화 성금 '밀물'

전국불자 동참 - 두달만에 1억5천만원

지난 1월 8일 부처님 성도절을 기해 시작된 '깨달음의 사회화' 성금모금이 2개월만인 현재 총 1억5천여만원이 넘는 총 전격적으로 불자들의 관심과 호응이 뜨거워져서 이루어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주스님이 2천만원의 쾌척함으로써 시작된 모금운동은 조계사 금산사 화엄사 통주사 등 교구본사 뿐 아니라 도지사 강남 구룡사 인천사암연합회 부산 내원정사 낙산사 등 전국의 사찰에서 스님들을 비롯 고사리손에서부터 칠순 할머니까지 이어졌다.

특히 지난 5일 안양 한마음선원(원장 대행스님)에서는 월

설법은 이렇게 하세요

독수청산서 실기교육

법본에게 악을 지어주는 것과같이 부처님께서는 듣는 이의 근기에 알맞은 법을 설하시어 항상 우리 중생들을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셨다.

○ 방편법문을 되새기며 수행과 포교가 하나됨을 엮어내는 자리가 마련됐다.

설법연구원(원장 시몽스님)은 오는 28일부터 4월 20일까지 독수청산에서 주3회 설법교육연수를 실시한다.

스님과 불교교양대학 이상

화사한 봄 망월사로 광명선원 도봉산 산행

화사한 봄은 꽃바래리는 화엄이다. 어김없이 봄은 화려한 형형색색의 꽃과 향기를 머금으며 우리들으로 다가왔다.

봄의 향기를 찾아 떠나는 산행은 생각만해도 즐거움이 앞선다.

일심으로 마음 밝히는 뜻을 같이하고 있는 광명선원 거사법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도봉산으로 산행을 떠난다.

전철 1호선 의정부역 망월사역 출구에서 출발하여 망월사까지 등산하는 이번 산행에 불자가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02)584-1108.

시심은 삶을 색칠하고 불교문화 유적순례

낙엽만 굴러도 가르르 웃음

을 이수한 제자불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실습위주의 설법 기법 향상을 도모하게 될 이번 교육은 현장포교를 대비한 일차 실습의 장이 될 것이다. (02)720-0824.

불교문화 포교원 주부 문화회(회장 허정숙)가 이렇게 꿈꾸던 여학교 시절의 솜씨도 뽐낼겸 불교포교 대중화를 위해 3월 17일 오전 10시 '불교문화 유적순례'를 떠난다.

성북동 만해 한옥은 스님의 수행처인 심우장과 수유리 공초 오상순 사비에서 느껴지는 기개와 시심(詩心)이 한곳에 그림처럼 시어(詩語)로 쏟아질 것이다.

발래하는 속에도, 설겅이 도중에도, 모든 일상을 시처럼 바라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인,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화가는 바로 자기 자신일 것이다. 자신의 삶을 시로 채우며 색칠해 보자. (02) 308-9520

해능스님의 마음법문

봉은사 육조단경 강의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이다. 봉은사(주지 무

유로이 전하며 극제화시대의 포교를 준비코자하는 스님들을 기다리는 곳이 있다.

해인사 백련암 서울본원인 정안정사에서는 스님들만을 위한 영어회화 강의를 실시한다.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이 강좌는 아직 회화가 가능하지 않아도 영어에 흥미가 있고 배우고자하는 정열을 지닌 스님이라면 누구나 환영한다. (02)503-8088.

생활고민 풀어줍니다

법원사 무료상담

바쁜 일과속에서도 불구하고

깨달음의 사회화성금

▲홍주사	2억887만5천원
▲쌍계사	3천125천원
▲안양 한마음선원	2천126만840원
▲지지사	4천256천원
▲부산 내원정사	1천만원

(2월 28일~3월 6일)

\*성금모금 계좌번호  
농협053-01-22778  
국민은행023-01-0533-563  
예금주: (불교중앙교회)

## 나와 이웃 그리고 자연은 하나

### 생활속의 불교 ②

협찬 (주)성풍산업

## "허공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우리는 가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쓴다.

세월이 흐르다 보면 불 같이 일었던 화도 가라앉게 되고, 사무치던 그리움도 조금은 시들해진다. 육신의 고통이나 정신적인 번민도 그럭저럭 견딜 만 해진다. 한편으로는 내성이 생긴 것이요 한편으로는 체념하게 되거나 감정이 바래진 것이다.

'좀더 생각기를 두고 생각해 보자', '내일 다시 생각하자'는 것은 바로 이 시간이라는 약방문이 제법 유효한 줄을 알기 때문에 내리는 처방이다.

그러나 실은 「시간이 약」은 아니다. 그 말의 뜻은 다름아닌 '시간을 벌고 보면 생각이 바뀔 것'이라는, 우리를 의식작용의 속성을 꼬집은 것이다.

요는 시간이 아니라 한 생각이다. 가령 누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해왔을 때 이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할 수도 있었지만 한편 '그래, 내게도 잘못이 있었겠지. 그는 나를 일깨워 주려고 체책을 든 것뿐이야' 할 수도 있다.

시간이 흘러 생각이 바뀌는 걸 보면 구태여 시간에 기달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생각 돌려 보는 게 더 현명할지도 모른다.

우리의 의식세계란 따지고 보면 서툰어치도 안되는 지식에 의지하고 있다. 그나마도 한 번 받아들이는 지식을 좀더 수정하지 않으려는 고집까지 부린다. 그걸 고정관념이라 한다. 고정관념은 또 반드시 집·아만을 동반한다. 그러다보니

유연한 사고, 열린 사고를 할 수가 없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사랑분별의 경계를 넘어서는 참지혜의 길을 제시하셨다. 욕심·성냄·이리석음을 세 가지 독이라고 하셨고, 그런 삼독심과 나를 포함한 일체의 형상에 대한 집착을 여의면 해탈에 이른다 하셨다.

관념이란 실은 실체가 없는 허공 같은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관념의 벽을 두텁게, 높게 쌓아올리고 있다. 그리고는 스스로를 그 속에 가두기도 하여, 그 관념에 걸려서 스스로를 넘어뜨린다. 우리들은 허공에 갇힌 사람, 허공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인 셈이다. 한 생각 돌려 거기서 벗어나는 지혜의 길은 불법 속에 있다.

## 한건의 누수 사고도 없었습니다

### 목표는 국내 최고!!

- 86년 3월 설립
- 대형 건설업체의 취약부인 고질적인 방수 하자 보수공사 성공리 완료
- 설립 7년 만인 93년 연간 약 46억의 공사 수주
- 신방수공법, 특수도장 부문 등 각 건설업체로부터 각광
- 100% 직영 처리
- 기술 및 안전에 관한 철저한 교육 실시
- 회사 설립 이후 철저한 무사고 시공!

성풍산업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4번지의 29  
전화 553-2441-3, 553-7788-9  
팩스 553-2449